 <b>환경부</b> <small>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<b>보다 나은 정부</b>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
	보도일시	<b>배포 후 즉시</b>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국제협력과	김고응 과장 / 문세흠 사무관 044-201-6560 / 6573
	배포일시	2019. 6. 16. / 총 4매	

## G20 환경·에너지장관회의, 환경장관회의 폐막

- ◇ G20에서 환경 관련 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·에너지장관 합동선언문, 환경장관선언문 채택
  - (합동선언문) G20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 인식을 공유하고, 파리협약 이행,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 등을 촉진하는 합동선언문 채택
  - (환경장관선언문) 자원효율성 촉진, 해양폐기물 저감, 기후 적응 기반시설(인프라) 확대를 위한 환경장관선언문 채택

### 1. 회의개요

- G20 정상회의(6.28~29일, 오사카)를 앞두고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에서 환경·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.
  - \* △ G20 환경·에너지 합동장관회의(6.15),  
△ G20 환경장관회의(6.15~16), △ G20 에너지장관회의(6.15~16)
  -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·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.
    - ※ 에너지장관회의는 2015년부터 개최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### 2. 환경·에너지 합동장관회의 논의결과

- G20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파리협약 이행, 청정에너지 기술혁신, 산업계 역할 등을 강화하는 합동선언문을 채택했다.
  - 이와 더불어 에너지전환과 함께 기후변화, 생물다양성, 미세먼지(PM2.5)를 포함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유, 기술혁신,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혁신행동계획(G20 Karuizawa Innovation Action Plan)에 동의 했다.
-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합동장관회의 발언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의 대부분이 에너지 부문에서 기인함을 밝히고,
  - 기존 탄소 에너지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위해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,
  -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상황 및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경과를 소개했다.

### 3. 환경장관회의 논의결과

<자원효율성 및 해양 폐기물>

- G20 회원국은 순환경제, 지속가능 물질관리, 3R(Reduce, Reuse, Recycle) 등의 정책 접근을 활용한 자원효율성 촉진이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,
  - 특히, 해양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개별국가 별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,

- 일회용 플라스틱,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관련 제4차 UN환경총회 결의안\*과 플라스틱을 관리물질로 지정한 제14차 바젤 협약을 환영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'G20 해양폐기물 이행 체계'를 지지하였다.

\* UNEA 4/7, Marine plastic litter and microplastics  
 UNEA 4/10, Addressing single-use plastic products pollution

-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자원효율성 개선을 통한 자원소비와 경제성장의 탈동조화(decoupling)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선형경제 패턴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.

- 한편 해양 플라스틱이 별도 처리 없이 환경에 유출되었을 경우 생태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,
-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'G20 해양폐기물 이행체계'를 환영하고 지지하면서, 한국정부도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.

\* G20 Marine Plastic Litter Implementation Framework

<기후 적응 기반시설(인프라)>


- G20 회원국은 기후 적응 행동이 재난위험을 방지하고, 지속가능발전과 취약계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임에 동의하며,
- 기상이변 및 재난에 대비한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하여 종합적응 전략 및 재난관리전략 수립이 중요함을 강조하고,
- 국제협력을 통해 적응계획 관련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.

-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적응 조치는 기후재난의 사후관리 측면뿐만 아니라, 취약계층 및 사회 전체의 기후탄력성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,

- 적응 정책 결정시 효과성, 지속가능성, 평등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,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 및 부문에 따라 상이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.

4. 양자회담

-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환경보호청 청장(Andrew R. Wheeler), 영국 환경, 식품 및 농업부 정무장관(Therese Anne Coffey), 터키 환경 및 도시계획 장관(Murat Kurum)과 양자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, 물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 끝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,
	환경부 국제협력과 문세흠 사무관(☎ 044-201-65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